

“자연분해 500년...아이들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관심 가져야죠”

전남지역 고등학교 학부모회 아이스팩 재활용 실천 운동 전개

전남지역 고등학교 학부모회가 아이스팩 재활용 실천 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고흥고등학교 학부모회는 최근 고흥군,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 고흥군 자연보호협회 등과 함께 아이스팩 재활용 실천 운동을 전개했다.

고흥고 학부모회는 학교와 고흥군청, 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400여 개의 아이스팩을 세척, 살균하고 고흥군 남계리 전통시장 등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이미정 학부모회장은 “아이스팩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 낭비를 줄



이기 위해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이스팩은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임에도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고 있다”며 “미세플라스틱의 한

과 발달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종류인 ‘고흡수성 수지’란 물질로 만들어진 아이스팩은 탁월한 냉장 효과가 있지만, 자연분해 되는데만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며 아이스팩 재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은 약 3억 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 중 약 80%가 소각 후 매립되고 있으며, 약 15%가 하수구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

서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 얼음조끼 전달



광주 서구(정장 서대석)가 최근 무더위에 도 폐지나 고철을 주우며 생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79명에게 얼음조끼와 방역마스크 25매, 안전장갑 10조식을 전달했다.

지원은 지난 2월 제정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얼음조끼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유난

히 더운 올 여름을 보낼 일이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아이스조끼 지원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우수 어촌 순회교육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2일 전남의 우수 어촌인 강진 사초어촌계(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진도 모사어촌계, 해남 동원-임하어촌계 등을 순회하며 정부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사업을 협의했다. 이들 어촌계는 방파제, 물양장 등 기반시설, 커뮤니티센터·공동작업장·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보완,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센터는 이들 어촌계가 이들 시설의 자체적인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전복, 미역, 다시마, 낙지 등 특산물 물건을 건조, 저숙 등 1차 가공해 상품으로 만드는 등 6차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전남서부농협자산관리, 신용회복 농업인에 생필품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남서부지사(지사장 조형규)는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 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한 무안지역 농업인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50 광주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올림픽 투데이	20 2020 도쿄올림픽 <골프/다이빙/육상>	05 KBC 모닝와이드 20 SBS 도쿄올림픽 <골프/육상>
8	25 아침마당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여기는 도쿄 <골프/다이빙>		
10	00 2020 도쿄올림픽 <비치발리볼, 스케이트보드>			30 SBS 도쿄올림픽 <골프/탁구>
11		30 여기는 도쿄 <골프/탁구>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30 2020 도쿄올림픽 <스케이트보드>		00 MBC 뉴스 10 2020 도쿄올림픽 <골프/다이빙>	
1	15 2020 도쿄올림픽 <농구>			
2				
3	30 마법소녀 디디 2 45 출동! 유우쿠조대 2	00 KBS 뉴스타임 10 여기는 도쿄 <다이빙 여10m 결승>		
4	00 사사건건		00 2020 도쿄올림픽 <사이클/육상/스포츠클라이밍>	00 SBS 도쿄올림픽 <사이클>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재)	00 여기는 도쿄 <사이클 예선/야구 /스포츠클라이밍/탁구/육상>		
6	00 6시 내고향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35 생방송 연금복권 720+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곱걸		4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00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	20 광주MBC 다큐플러스 핑크피쉬	30 펜트하우스 3(재)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2020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50 백종원 클라쓰(재)	2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굿나잇 도쿄	
12			40 미치지 않고서야 스페셜 몰아보지 않고서야	00 도쿄 투나잇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미스터리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로이와 함께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EBS 부모	19:05 포텐톡
07:15 티시테시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명의	19:5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안전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풍경은 영화처럼 -알프스 로드 무비, 스위스>
08:00 땀동맹 유치원	15:15 클래스 e	21:30 한국기행 <여름, 잠시 쉬어가요 4부 뜨거운 여름 맛>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50 피란만장
08:45 한글용사 아이야	15:50 가만히 10분 명TV	22:45 다시 인생, 죽기 전에 꼭 한번
09:00 시공	16:00 페파 피구	23:35 클래스 e
09:15 봉구야 말해줘2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09:30 우당탕탕 아이쿠	16:30 땀동맹 유치원(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5일(음 6월 27일 乙酉)

<p>36년생 의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48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갈 길이 정해져 있다. 60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수 있다. 72년생 한 순간에 절호의 찬스가 지나간다. 84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과 실행이 요구 된다. 96년생 일시적인 현상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행운의 숫자 : 34, 85</p>	<p>42년생 순서를 무시한다면 혼란에 빠진다. 54년생 타격을 받지 않으니 무시해도 된다. 66년생 내버려 둔다면 급속히 냉각되어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78년생 재대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국면에 이르렀다. 90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02년생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30, 89</p>
<p>37년생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49년생 꿈꿔 왔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61년생 동시 다발적으로 속출할 수도 있다. 73년생 격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85년생 차선책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리라. 97년생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유용하다. 행운의 숫자 : 39, 53</p>	<p>43년생 여태까지 공력을 들이며 추구하여 왔던 바에 탄력이 붙게 되는 날이다. 55년생 결과적으로는 대승이 하게 될 것이다. 67년생 성곡을 아유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79년생 외부는 시끄러워도 내부는 평온할 것이다. 91년생 우연히 현상의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03년생 실효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7, 76</p>
<p>38년생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탈이 나리라. 50년생 확실한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자. 62년생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버리겠다. 74년생 손발이 적절치 않아 손조로움을 더 하겠다. 86년생 감당하지 못 하겠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백 번 낫다. 98년생 관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7, 69</p>	<p>32년생 헛것 달려보면 결과가 만족할 만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44년생 재앙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56년생 계약 건에 있어서 특별한 행운이 따르는 호기로다. 68년생 더불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소되리라. 80년생 궁극적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92년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8, 81</p>
<p>39년생 상대적 편자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라. 51년생 불편하기는 하나 흥사는 없고 평길할 뿐이다. 63년생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되는 면이 아니라. 75년생 부담스러운 의뢰를 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87년생 잘 선택하지 않으면 두근두근 후회 하게 되어 있느니라. 99년생 잔소질이 여러 번 가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78</p>	<p>33년생 알고도 가만히 있음이 나을 것이다. 45년생 뒤따르는 이가 보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57년생 가지지기를 잘 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69년생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81년생 평상시에는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보인다. 93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6, 70</p>
<p>40년생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라. 52년생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음에 나을 것이다. 64년생 실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불 일이다. 76년생 삼사 일인 한다면 신뢰가 쌓이리라. 88년생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니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 00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19, 98</p>	<p>34년생 제3자의 관점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 46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58년생 놓치고 나서 후회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70년생 삼사 일인 한다면 신뢰가 쌓이리라. 82년생 즉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 94년생 탐욕스럽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49, 60</p>
<p>41년생 정도를 벗어나면 당연히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53년생 의심스러운 국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65년생 진중하다보면 점진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니 틀림없다. 77년생 입장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다. 89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소비로 이어진다. 01년생 능률이 오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83</p>	<p>35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나갈 때 절호의 기회에 이르렀다. 47년생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무리가 있으니 경험자나 전문가와 함께하라. 59년생 비웃을 때 새삼스럽게 답을 수 있음이리라. 71년생 개별적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83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는 이가 있겠다. 95년생 폭풍전야와도 같다. 행운의 숫자 : 42, 96</p>